

영광 안마도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

환경부, 야생동물법 일부 개정
버려진 사슴 1000여마리로 증가
농작물 조상묘 훼손 등 피해 속출
군민, 2023년 국민권익위 민원



환경부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환경부 제공

꽃사슴 때문에 30여년간 고통을 받아온 영광군 안마도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되찾게 됐다. 생태계 교란·농작물 피해를 일으킨다는 민원이 많았던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30일 영광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면 지자체장 허가를 받고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이 19종으로 늘어난다.

꽃사슴은 1950년대 대만과 일본에서 가족으로 수입됐고, 수입된 개체 중 일부가 유기되면서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번식력이 강하고 국내에 천적이 없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영광군 안마도에 937마리의 꽃사슴이 서식하고 있으며, 꽃사슴 서식 밀도는 1㎢당 162마리에 달한다. 영광군은 안마도 400마리, 석만도 80마리, 오도 70마리, 횡도 5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안마도에서는 최근 5년간 1억6,000여만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꽃사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 확인됐다.

꽃사슴이 농작물을 먹거나 조상 묘까지 파헤치면서 민가에 큰 피해를 주자 2023년 7월 영광군 안마도 주민 593명은 권익위에 집단으로 민원을 넣었다.

섬에 사슴이 처음 들어온 건 1987년께로 추정된다. 축산업자 3명이 녹용 채취로 고소득을 올리려고 엘크와 꽃사슴 등 20여마리를 길렀지만 이후 타산이 맞지 않자 1990년대 들어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화된 일부 사슴 무리는 바다를 헤엄쳐 인근 부속 섬 석만도까지 진출, 번식을 이어가고 있다.

늘어난 사슴 무리는 주민들이 애써 키운 밭작물과 조경수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고 심

지어 조상 묘를 파헤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또한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 판명됐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 병원체가 확인됐다.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돼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월, 무단 유기가 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부처별로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신청에 따라 지자체가 포획을 허가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고흥문화재단 설립 ‘가속도’

문화 진흥 구심점 기반 마련

군민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정책의 연속성, 효율성, 창의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고흥문화재단’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고흥군은 최근 고흥군 대표 누리집을 통해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고흥문화재단 설립은 급변하는 문화예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문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주요 사업에는 △문화예술진흥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등이 포함된다. 군은 올 하반기 중 재단 설립을 목표로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전남연구원은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설립 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재단 설립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흥군은 오는 5월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 제정, 재단 이사회 구성, 법인 등기 등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흥=진종연 기자



신안군, 보라해 댄스페스티벌 성료 신안군이 최근 자은면에서 개최한 2025 보라해 댄스페스티벌이 막을 내렸다. 신안군 제공

순천 현대·미즈아동병원, 모자의료 사업 선정

순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현대여성아동병원과 미즈여성아동병원이 협력체계 구축 병원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 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 중증치료기관, 지역분만기관 3단계로 구성된 병원 간 연계·협력 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전남대병원이 대표기

관으로 지정됐으며, 조선대학교병원과 현대여성아동병원이 중증치료기관으로, 미즈여성아동병원을 포함한 10개소가 지역 분만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조산아·미숙아 출생 시 긴급수술이나 치료를 위해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해야 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대학교병원과 협력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전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보다 안전하게 분만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순천=박경식 기자

장성군-광주과기원, 교육발전특구 성공 운영 협력

장성군이 광주과학기술원과 협력해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나선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된 장성군은 △지역 돌봄 책임제 △지역 연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분무 특화인재 육성 △배우고 일하며 함께 사는 장성 구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임기철 지스트 총장 및 교수진, 장성지역 고교 교장단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스트 김재관 교



장성군이 광주과기원 김재관·양성·허필원 교수를 교육발전특구 교육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장성군 제공

수(의생명공학과)와 양성, 허필원 교수(기계로봇공학과)는 교육자문관으로 위촉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스트, 지역 고교와 함

께 장성만의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미래형 인재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곡성 석곡파출소, 민·관·경 합동 치안활동

곡성경찰서 석곡파출소는 30일 상가 및 전통시장에서 농번기철 농기계 교통사고와 전화사기 예방을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펼쳤다.

치안활동에는 석곡 자율방범대와 상가상인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협력단체와 석곡면사무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사발이 운행시 주의사항과 불법 주·정차 금지 교통 안전수칙, 미끼문자 주의 전화사기 예방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했다. 야랑조끼·반사지 등 홍보물품을 부착하며 동참과 실천을 당부했다.

이동원 석곡파출소장은 “안전한 지역 문화 정착을 위한 계절별·테마별 특별 치안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곡성=류성 기자



여수문수복지관, 돌봄 종사자 숲 체험 활동

여수문수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맞춤형 돌봄서비스 종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숲 체험 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숲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오감 열고 숲길 걷기 △해먹 힐링 △싱잉볼 음악 치유 △숲속 명상 △아로마 향기 요법을 체험하며 생활지원사들과 친목을 다지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숲 체험에 참여한 한 생활지원사는 “명상을 통해 행복한 나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봉춘 문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생활지원사들이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무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천연염색 체험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근 복지관 회원들과 양파를 이용한 천연염색 체험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천연염색 체험은 자연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의 창의성과 감성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체험은 무안군생활개선회 염색분과 회원들과 함께하는 맞춤형 체험학습으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염색 기법을 배우고, 염색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체험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남 관장은 “지역단체와의 연계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